

플라리스쉬핑 광탄선 군산 배정 요청

박재만 도의회 원내대표, 3척 선박펀드 활용 통해... 현대중공업·정부에 조속한 입장표명 요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해법으로 플라리스쉬핑이 발주한 광탄운반선(VLOC)을 선박펀드를 활용해 건조하고 군산조선소에 일감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는 일감부족으로 폐쇄에 들어간



박재만 의원

군산조선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리스쉬핑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광탄운반선 3척을 선박펀드를 활용해 건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중견 해운사인 플라리스쉬핑은 현재 선박 32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과 32만5000톤급 초대형 광탄운반선 3척에 대한 신조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초대형 VLOC 3척을 선박펀드를 활용해 건조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재만 원내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에 따라 군산을 비롯해 전북 경제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플라리스쉬핑 선박을 선박펀드를 활용해 건조한다면 가동이 멈춘 군산조선소에 일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과 정부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경기가 좋아질 경우 2년 이후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

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선업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군산조선소 도크를 협력업체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현대중공업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 군산 시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군산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이번 플라리스쉬핑 선박 건조를 마지막 해법으로 생각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도당, 17~18일 당직자 하계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7~18일 1박2일동안 남원에서 당직자 하계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민주당 당직자 교육연수는 당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소속감 부여, 당원 간 교류를 통한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도당 각급위원장 및 국장, 도당 상근 당직자 등 7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교육연수에서 도출된 도당 정책과 방향을 당원들에게 적극 홍보 집행할 예정이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초당적 여성 중진 의원 모임 '여진회' 첫 모임부터 주목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장관 30% 시대를 열었다. 또 국회 원내 5당 중 3당은 여성이 당대표다. 정치와 관아가 가히 '여풍(女風)'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풍' 한가운데 있는 여야 여성 중진 의원의 초당적 모임, 이른바 '여진회'가 첫 모임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9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여진회 첫 모임에는 김상희,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모임을 주도한 박순자 의원은 이날 "정파를 초월해 선수(選數) 있는 중진 의원들이 순수하게 국회에 대한 여러 이미지나 정책 등을 의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0대 국회는 여성 중진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모임을 이끈 김상희 의원도 "중진들이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소통도 하고 정치 발전에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나눴다"며 "여성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진회는 이날 2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첫 모임을 마쳤다.

다만 8월 예정된 두 번째 정기 모임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9월 중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도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 취임 축하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퇴임 위로 등을 겸해 한 차례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는 박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박순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8월에 여름휴가가 있어 9월 초 만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만세 삼창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15일 오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춘진, 익산국토관리청 방문 지역개발 촉진 요청

(민주당 도당 위원장)

김원중 청장에게 부창대교 등 도내 15개 도로건설 SOC사업 원활한 추진 등 건의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사진)은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전북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원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서남권 국도건설 사업인 부창대교 등 전북 15개 도로건설 SOC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

을 위해 교통망 확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를 위해 교통망 확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김춘진 위원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셋 노치와 범이